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Ⅳ)*

한국청소년 가치관의 실태분석 및 부모의 가치관과의 비교연구**

Ecological support system for promoting youth culture in a new millenium age*

-A Study on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s values and a comparative research in their parents' valu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정우 · 김명자 · 계선자 · 박미석
박사과정 정진희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Lee, Jeong Woo · Kim, Myung Cha · Kye, Sun Ja · Park, Mee Sok

Doctoral Student : Jeong, Jin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the explorabl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comparatively analyzing values targeting the 1125 pairs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high school students' values according to their gender, class type, and residential area. Thus, values are shown differently by personal backgrounds or characters among peer group.

Seco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lues of life, home, society and nation.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인 '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의 일부임.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은 숙명여대 홈페이지(www.sookmyung.ac.kr)의 BK 21를 참고하기 바람.

I. 서론

70년대 이래의 경제발전 및 산업화는 물질지상주의, 기능우선주의, 목적주의, 경쟁주의, 개인주의라는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규범과 현대규범의 혼돈상태이고, 동서가치관이 혼재해 있으며,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실용주의와 도덕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부조화적 혼재 등이 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립된 준거체제를 갖고 있지 못한 채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빠른 사회의 변화와 합의된 가치관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더욱 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은 발달과정장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이탈행동을 유발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부모세대의 가치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때로 대립되기도 한다. 이는 부모세대는 여전히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여 안정지향적인 반면 부모들이 만들어 준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며, 서구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한 청소년은 개인주의와 탈 권위주의 등 서구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와 기성세대인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가 심화될 때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된다. 그러므로 기성세대인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역기능적인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동향을 보면, 사회학 및 교육학에서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를 연구하고 있고(이계학, 1992), 가정학 분야에서는 주로 결혼관과 가족가치관을 통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을 언급하고 있을 뿐(유영주·김진숙, 1990), 고등학생 및 그들의 부모와의 가치관을 비교하는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성장하므로 유사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발달시킨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개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은 상이해지므로 청소년의 가치관을 연구할 때 동시집단의 보편적인 면과 함께 개별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청소년 가치관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규명하여 청소년 가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동시집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과 부모세대는 역사적 경험과 성장 시기가 다르므로, 당연히 세대차이와 세대간의 갈등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그 부모의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여 세대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이 중요한 만큼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변화도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가치관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게 하고, 합의된 가치관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가치관과 그 발달과정

가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개념으로, Rokeach(1973)가 가치를 행동양식이나 존재상태에 대하여 선호하는 신념으로 정의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가치를 선호와 신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치관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에 의하면 가치관이란 가치나 태도보다는 심층에 내면화된 복잡한 것(Newcomb, 1965)이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생각이다(Kluckhohn & Strodtbeck, 1961). 또한 가치관이란 체제화된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사회의 행동준칙이고,

평가기준이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반화되고 조직된 개념이다(김태길, 1982; 정범모, 1973).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치관이란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복합적으로 체계화된 행위의 기준이며, 평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Havighust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청소년들은 아동도 성인도 아닌 과도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가치관 정립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가치관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론적 접근으로 설명한다(윤진, 1993). 첫째,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가치관의 발달은 초자아의 발달이다. 초자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개인의 내적 기준으로 양심발달의 기초가 된다. 초자아발달은 자기 자신을 부모와 같은 권위의 소유자와 동일시하므로써 가능해지며, 이때 청소년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둘째, 학습이론적 입장으로 청소년의 가치관 발달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강화에 달려 있다. 즉 청소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타인을 모방 관찰함으로써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셋째, 지각적 입장으로 청소년은 주위환경으로서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라 가치관을 발달시켜나간다. 그러므로 부모와 같은 강력한 주변환경이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의 가치관 발달과정은 부모나 학교교육을 통해 문화 속의 가치가 개인의 의식으로 자리잡아 가치관으로 정립되기도 하고, 청소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합리화로 사용된 가치가 내면화되어 가치관으로 정립되기도 한다.

요즈음 청소년의 가치관은 분명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때로는 대립되기도 한다. 오늘

의 청소년들에게 발견되는 현저한 가치관으로는 첫째,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팽배해가고 있는 경향이다. 모든 가치적인 판단을 물질적인 기준에 의거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향락주의와 소비성향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안일주의 가치관이 고조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가장 이상이 높고 꿈이 많은 시기이며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는 안일한 생활관이 상당한 정도로 파급되고 있다. 셋째, 이기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경향이다. 건전한 의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혼동되고 있으며 이기적인 태도나 행동이 개인주의라는 명분으로 타당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권이종 외 5인, 1998).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기존의 가치체계와 갈등을 초래하며,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은 다른 어느 시기의 경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가치관 비교

청소년자녀와 그 부모는 생애주기상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속하고, 그에 따라 각자 자신들의 발달과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인생주기에서 정체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재현되는 시기가 청소년기와 중년기로서, 중년의 어머니와 청소년의 자녀는 모두 자신들의 정체감 확립이라는 과업에 매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를 이해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거나 심각한 갈등양상이 나타난다(김애순·윤진, 1997; 장휘숙, 1996; 정윤경, 1997; Binger, 1985; Lamanna & Riedman, 1994). 인생에 있어 중년기는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가지며,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인식하는 시기인데 반해(김명자, 1998),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모든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있는 생의 절정을 향한 출발의 시기이므로, 소극적이고 정적인 어머니와 적극적이고 동적인 자녀는 발달단계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Binger, 1985;

Papalia & Olds, 1995; Small & Eastman, 1991).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발달과업의 차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대의 관계에 대한 투자와 목적이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따른 내기걸기(developmental stake)를 하게 한다(김영숙, 1990; 윤진, 1993; Glass, et, al., 1986).

청소년과 부모는 시기적으로 다른 세대에 태어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 권위뿐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김경신, 1989). 중년주부와 자녀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두 세대간의 세대차이 때문이다.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서로 다른 출생동시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상이한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된다. 세대간의 이런 상이한 경험은 곧 상이한 가치관을 형성케하고 이는 곧 생활양식, 태도와 행동 등의 차이를 가져와 세대차이를 낳게 된다(윤진, 1993; Duncan & Agronick, 1995; Riley, 1987).

과거에는 가치전달의 중요한 기제가 가족이었지만,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은 가족이외의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을 가져와 가치전달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된다. 또한 가치는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사회화과정을 거쳐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 재사회화의 경험이 상이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임희섭, 1980). 즉 중년세대인 부모세대는 재사회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에, 자녀세대들은 다양한 재사회화 기관으로부터 풍부한 가치와 지식을 전달받음으로써 변화를 주도해 나가려 한다. 따라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는 현격한 세대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박승욱, 1991).

자녀세대와 중년의 부모세대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가치관의 차이는 권위주의 대 평등주의, 집합주의 대 개인주의, 온정주의 대 합리주의, 물질주의 대 인본주의, 안정지향 대 변화지향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김태희, 1995; 이춘재 외 8인, 1997; 최운실, 1993). 또한 청소년 자녀들은 유토피아적 이상을 꿈

꾸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전진하므로써 기존 질서의 변화를 시도하려 하는 반면 부모들은 기존 질서의 유지를 위해 현실적이며 보수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고 그에 따라 단기적이며 실용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송정아·윤명선, 1997; 장휘숙, 1996).

특히 이런 세대차이는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게 나타나지만, 현대 사회와 같이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빈번하고 격렬하게 나타나 사회문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다음은 선행연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자녀간 가치관 비교에서는 상호간의 가치유사성 정도에 따라 가치 전달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Acock와 Bengston(1980)는 부모자녀간 가치의 유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 반면, 이러한 부모자녀간 가치의 유사성을 부정적으로 지적한 연구들도 있다. Smith와 Self(1980)은 성역할관에 있어 어머니와 딸의 가치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Broman과 Stockdale(1979)는 자녀에 대한 가치에 있어 모녀간의 상관관계가 희박하다고 하였다(김경신, 1998: 재인용). Bengston(1978)의 연구에서도 존재의 궁극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가치들(물질주의·인본주의)은 세대간에 유사하였고, 목표지향적인 가치들(집단주의·개인주의)은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김영숙, 1990: 재인용).

박성연(1986)은 전통적인 자녀관에 있어 모녀간 세대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일명·김명자(1989)는 대학생과 기성세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성세대는 전통성을 대학생세대는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혜선(1990)도 젊은 세대가 진보적이고 변화지향적인데 반해 기성세대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했다. 이병주(1989)의 연구에서도 인생본성관, 자연관, 활동관, 관계관, 시간관에서 고등학생과 학부모간에 차이를 보였다. 김영숙(1990)의 연구에 의하면 궁극적

가치 중 안락한 생활과 자유에 대한 가치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안락한 생활에 대하여 부모세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비해 자녀세대는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도구적 가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과 관련된 가치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만 부모자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오상현(1995)의 연구에서는 사회관, 환경관 보다는 인생관에 있어서 세대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김경신(1998)는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부모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관이나 성역할관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했고, 부모자녀간에는 부양 및 효의식에 있어 집단차가 크지 않게 나타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효도관은 자녀세대에 까지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과 부모의 가치관을 비교해볼 때, 어떤 가치들에서는 세대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가치들의 속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관련변인(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자녀와 그들의 부모의 가치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가치관척도는 선행연구(김문조 외 3인, 1995; 삼성복지재단, 1994; 안종진, 1992)를 토대로 연구자가 가치관을 3개 하위영역 11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20명의 개인 면접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공교수 4인의 안면타당도에 의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질문지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개인·가족·사회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삶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5~8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1순위 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삶에 대한 가치관은 삶의 가치, 인생의 목표, 운명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가정의 역할, 행복한 가정의 조건, 결혼의 필요성, 효도하는 방법, 부모부양방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은 심각한 사회문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중요성, 통일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PC+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으로 가장 대표성 있다고 간주되는 집단들을 할당 표집하였다. 추출방법은 집락표집과 비율층화표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비율층화표집의 경우 모집단은 교육부(1999)의 교육통계연보의 성별(남:여=5:5)과 계열(인문계:실업계=6:4)을 기준으로 각 범주에서 일정수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강북과 강남을 고려하여 강북의 K고, 강남의 O고 등의 8개 고교를, 중소도시로는 경주의 K여고, 안양의 B고, 천안의 C고, 춘천의 C여고 등의 6개 고교를 선정하였으며, 군·읍·면 소재지로는 강원도의 U여고, 경기도의 K여상, 경북의 A종합고, 충남의 D고, 전남의 J고교 등 5개 고교를 선정하여 전국의 총 19개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1학년 또는 2학년인 고등학생과 그 부모(응답이 가능한 아버지나 어머니 1명)를 한 쌍으로 하였다.

1999년 10월 25일에서 10월 31일까지 고등학생 35명, 고등학생을 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면

〈표 1〉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

(n=1125)

청소년 관련변인	집 단	빈도(%)	부모관련변인	집 단	빈도(%)
성 별	남	566(50.3)	성 별	아버지	328(29.1)
	여	559(49.7)		어머니	797(70.9)
계 열	인문계	744(66.1)	학 력	중졸	274(24.4)
	실업계	381(33.9)		고졸	556(49.4)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506(45.0)		전문대졸이상	295(26.2)
	중소도시	344(30.5)			
	군·읍·면소재지	275(24.5)			

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쌍으로 1300부를 배부하여 1196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1125부만을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청소년의 가치관

1)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가치관은 삶의 가치, 인생의 목표, 운명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약 50%정도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님께 효도(28.8%)라고 응답하고 있고, 이는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삶의 제일의 가치로 삼고 있었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은 여학생(58.3%)이 남학생(40.0%)보다 높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학생(22.8%)이 남

학생(34.6%) 보다 낮았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의 우선 순위는 같았지만, 남학생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모두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자기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적인 가치관이 혼재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서울과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의 1위로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군·읍·면의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군·읍·면의 청소년은 전통적 가족주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 청소년보다 인문계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님께 효도는 실업계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생의 목표'를 질문하였더니, 62.6%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의외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학식, 권력, 명예, 헌신 등에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김문조 등(1995)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56.8%)보다 여학생(68.5%)이 서울(59.4%)과 군·읍·면지역(57.6%)의 청소년보다는 중소도시(71.3%)의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것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운명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규범을 지니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로 삶의 가치관

<표 2>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가치관

영역	변인	성별		거주지역			계열		전체
		남	여	서울	중소도시	군·읍·면	인문계	실업계	
삶의 가치	나라에 충성	17(3.1)	5(0.9)	3(0.6)	9(2.7)	10(3.7)	17(2.3)	5(1.3)	22(2.0)
	부모님께 효도	193(34.6)	125(22.8)	123(24.8)	83(24.8)	112(41.6)	171(23.5)	145(39.0)	318(28.8)
	남을 위한 헌신과봉사	84(15.1)	86(15.7)	65(13.1)	54(16.1)	50(18.6)	124(17.0)	45(12.1)	170(15.4)
	자신을 위해 사는 일	223(40.0)	320(58.3)	275(55.6)	177(52.8)	86(32.0)	381(52.3)	159(42.7)	543(49.1)
	기타	40(7.2)	13(2.4)	29(5.9)	12(3.6)	11(4.1)	35(4.8)	18(4.8)	53(4.8)
	계	557(100)	549(100)	495(100)	335(100)	269(100)	728(100)	372(100)	1106(100)
	χ^2		52.1***		56.7***		30.3***		
인생의 목표	돈을 많이 버는 것	90(16.2)	84(15.3)	82(16.6)	40(11.9)	50(18.6)	98(13.5)	75(20.3)	174(15.8)
	학식을 많이 쌓는 것	13(2.3)	6(1.1)	4(0.9)	6(1.8)	9(3.3)	15(2.1)	4(1.1)	19(1.7)
	권력·명예를 얻는 것	45(8.1)	32(5.8)	43(8.7)	15(4.5)	19(7.1)	55(7.6)	22(5.9)	77(7.0)
	사회·국가 위한 헌신	52(9.4)	32(5.8)	35(7.1)	23(6.9)	25(9.3)	58(8.0)	25(6.8)	84(7.6)
	자신소질을 최대한 개발	315(56.8)	376(68.5)	293(59.4)	239(71.3)	155(57.6)	459(63.0)	228(61.6)	691(62.6)
	기타	40(7.2)	19(3.5)	36(7.3)	12(3.6)	11(4.1)	43(5.9)	16(4.3)	59(5.3)
	계	555(100)	549(100)	493(100)	335(100)	269(100)	728(100)	370(100)	1104(100)
χ^2		22.6***		29.9***		11.2***			
운명에 대한 태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383(68.8)	424(77.2)	370(74.9)	246(73.2)	185(68.8)	519(71.3)	285(76.6)	807(73.0)
	노력하여도 바꿀 수는 없다	33(5.9)	45(8.2)	31(6.3)	23(6.8)	24(8.9)	54(7.4)	23(6.2)	78(7.1)
	관심 없음	83(14.9)	36(6.6)	53(10.7)	37(11.0)	28(10.4)	81(11.1)	38(10.2)	119(10.8)
	잘 모르겠다.	45(8.1)	37(6.7)	30(6.1)	24(7.1)	28(10.4)	58(8.0)	22(5.9)	82(7.4)
	기타	13(2.3)	7(1.3)	10(2.0)	6(1.8)	4(1.5)	16(2.2)	4(1.1)	20(1.8)
	계	557(100)	549(100)	494(100)	336(100)	269(100)	728(100)	372(100)	1106(100)
	χ^2		25.0***		7.45		4.81		

***p<.001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관건이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운명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운명통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권력, 명예, 봉사 등과 같은 관계적 요소보다는 자신의 소질 개발이라는 자아실현적 가치를 삶의 목표로서 중시함을 알 수 있고, 운명통제론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표 3>

먼저 '가정의 역할'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가정

의 역할을 즐겁고 안락한 휴식제공(34.9%), 애정적 기능제공(31.9%), 인격의 기초형성(24.9%)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그 분포는 비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청소년들은 가정의 화목(53.6%)을 1위로 삼았으며, 그 다음이 가족의 건강(38.0%)순으로 나타난 반면 물질적인 풍요 및 사회적 출세의 비율(5.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가족의 화목이나 건강을 중시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는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표 3〉 관련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

영역	변인	성별		거주지역			계열		전체
		남	여	서울	중소도시	군·읍·면	인문계	실업계	청소년
가정의 역할	즐겁고 안락한 휴식제공	184(33.1)	201(36.7)	159(32.3)	125(37.3)	97(36.1)	253(34.8)	130(35.1)	385(34.9)
	인격의 기초 형성	133(23.9)	142(25.9)	138(28.0)	66(19.7)	70(26.0)	191(26.2)	84(22.7)	275(24.9)
	애정적 기능 제공	177(31.8)	175(31.9)	151(30.6)	121(36.1)	79(26.0)	225(30.9)	125(33.8)	352(31.9)
	기타	62(11.2)	30(5.5)	45(9.1)	23(6.9)	23(8.6)	59(8.1)	31(8.4)	19(1.7)
	계	556(100)	548(100)	493(100)	335(100)	269(100)	728(100)	370(100)	1104(100)
	χ^2		12.1**		11.2			1.89	
행복한 가정의 조건	물질적인 풍요 및 사회적 출세	43(7.8)	20(3.7)	39(8.0)	12(3.6)	11(4.1)	37(5.1)	26(7.0)	63(5.7)
	가족의 건강	208(37.8)	208(38.1)	181(37.0)	103(30.8)	128(48.1)	252(35.0)	161(43.6)	416(38.0)
	가정의 화목	281(51.1)	306(56.0)	252(51.5)	211(63.2)	122(45.9)	410(56.9)	174(47.2)	587(53.6)
	기타	18(3.3)	12(2.2)	17(3.5)	8(2.4)	5(1.9)	22(3.1)	8(2.2)	9(0.8)
	계	550(100)	546(100)	489(100)	334(100)	266(100)	721(100)	369(100)	1056(100)
	χ^2		10.6*		30.9***			11.4*	
결혼의 필요성	결혼은 반드시 한다	317(56.9)	143(26.0)	201(40.6)	129(38.5)	128(47.6)	301(41.3)	157(42.2)	460(41.6)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다	169(30.3)	367(66.8)	251(50.7)	178(53.1)	104(38.7)	360(49.5)	172(46.2)	536(48.5)
	생각해 본 적 없다	44(7.9)	26(4.7)	26(5.3)	20(6.0)	22(8.2)	38(5.2)	32(8.6)	70(6.3)
	기타	27(4.8)	13(2.4)	17(3.4)	8(2.4)	15(5.6)	29(4.0)	11(3.0)	24(2.2)
	계	557(100)	549(100)	495(100)	335(100)	269(100)	728(100)	372(100)	1106(100)
	χ^2		148.4***		17.3***			8.43	
효도하는 방법	자기 자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200(36.1)	222(40.4)	182(36.8)	131(39.1)	106(39.6)	227(33.8)	195(45.5)	422(38.2)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는 것	25(4.5)	8(1.5)	19(3.8)	4(1.2)	10(3.7)	23(3.4)	10(2.3)	33(3.0)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276(49.8)	274(49.8)	255(51.6)	164(49.0)	130(48.5)	360(53.6)	188(43.8)	550(49.8)
	자신이 입신 출세하는 것	49(8.8)	45(8.2)	36(7.3)	35(10.4)	21(7.8)	58(8.6)	35(8.2)	94(8.5)
	기타	4(0.7)	1(0.1)	2(0.4)	1(0.3)	1(0.4)	4(0.6)	1(0.1)	5(0.5)
	계	554(100)	550(100)	494(100)	335(100)	268(100)	672(100)	429(100)	1104(100)
χ^2		11.9*		8.7			16.2**		
부모부양 방법	장남 집에서 모신다	244(44.0)	127(23.3)	142(28.9)	92(27.5)	132(49.4)	209(28.9)	160(43.2)	371(33.7)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신다	139(25.0)	188(34.5)	161(32.8)	107(31.9)	58(21.7)	248(34.3)	77(20.8)	327(29.7)
	유료양로원에서 모신다	12(2.2)	10(1.8)	7(1.4)	9(2.7)	6(2.2)	15(2.1)	6(1.6)	22(2.0)
	부모님만 사신다	36(6.5)	77(14.1)	54(11.0)	41(12.2)	18(6.7)	85(11.7)	28(7.6)	113(10.3)
	생각해 본적이 없다	52(9.4)	53(9.7)	47(9.6)	39(11.6)	19(9.6)	65(9.0)	39(10.5)	105(9.5)
	기타	72(13.0)	90(16.5)	80(16.3)	47(14.0)	34(12.7)	102(14.1)	60(16.2)	162(14.7)
	계	555(100)	545(100)	491(100)	335(100)	267(100)	724(100)	370(100)	1100(100)
χ^2		61.2***		46.0***			35.6***		

*p<.05 **p<.01 ***p<.001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여, 빈도수의 차이가 남.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군·읍·면 청소년과 실업계 청소년들은 가족의 건강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을 보면, 청소년들의 48.5%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결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73.5%, 반대하는 사람은 1.3%로 대부분은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통계청 사회조사결과(한겨레신문, 1999. 5. 14)와 비교할 때,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탈피하여 결혼여부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약 40%의 청소년들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탈피하여 결혼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문조 등(1995), 삼성복지재단(1994) 등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효도하는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효도관을 살펴 보았는데, 청소년들의 49.8%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응답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자기 자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38.2%)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는 것이 효도라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이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적·복종적이던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변화하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신의 근본을 자각하고 부모를 위하는 현대적 효의 본질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명자·안선영, 1996). 이는 성별과 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인문계 청소년들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업계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응답비율이 높았다.

‘부모부양방법’을 보면, 장남 집에서 모신다는 응답(33.7%)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신다는 응답(29.7%)이 대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료양로원에 모신다는 응답은 2.0%로 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은 장남 집에서 모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1위인 반면 여학생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신다(34.5%)가 1위로 나타났고, 서울과 중소도시 청소년들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신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군·읍·면의 청소년은 부모님은 장남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부모부양이 아들의 의무라는 전통적 가족관념이 남학생과 군·읍·면의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님을 양로원에 모시는 것을 반대하고, 장남 집에서 모신다는 응답비율이 1위로 나타남을 볼 때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결혼관 및 부모부양방법에서는 남학생 및 군·읍·면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성향을 보였다.

3) 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

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은 심각한 사회문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중요성, 통일에 대한 견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표 4>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물질만능주의(32.5%)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치와 향락주의(27.0%), 권위주의(19.0%)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물질만능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환경보존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둘 다 중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불과 7.1%에 불과하였다. 성별과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환경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유전자조작이라든가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같은 첨단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태도나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

영역	변인	성별		거주지역			계열		전체 청소년
		남	여	서울	중소도시	군·읍·면	인문계	실업계	
심각한 사회문제	물질만능주의	174(31.3)	184(33.7)	157(31.8)	118(35.3)	82(30.6)	238(32.8)	118(31.8)	358(32.5)
	권위주의	94(16.9)	115(21.1)	107(21.7)	61(18.3)	39(14.6)	135(18.6)	73(19.7)	209(19.0)
	사치와 향락주의	144(25.9)	153(28.0)	118(23.9)	85(25.4)	90(33.6)	180(24.8)	115(31.0)	297(27.0)
	불신풍조	45(8.1)	21(3.8)	32(6.5)	21(6.3)	13(4.9)	50(6.9)	16(4.3)	66(6.0)
	파벌과 지역감정	38(6.8)	23(4.2)	24(4.9)	15(4.5)	22(8.2)	40(5.5)	20(5.4)	61(5.5)
	몰염치와 예절부재	45(8.1)	40(7.3)	40(8.1)	27(8.1)	18(6.7)	61(8.4)	24(6.5)	85(7.7)
	기타	16(2.9)	10(1.8)	15(3.0)	7(2.1)	4(1.5)	21(2.9)	5(1.3)	26(2.4)
	계	556(100)	546(100)	493(100)	334(100)	268(100)	725(100)	371(100)	1102(100)
	χ^2	16.7*		20.05			10.1		
경제성장 과 환경보존	경제성장이 더 중요함	49(8.8)	29(5.3)	32(6.5)	24(7.2)	21(7.8)	51(7.6)	27(6.3)	78(7.1)
	둘 다 중요함	191(34.5)	275(50.4)	212(43.3)	150(44.9)	103(38.3)	277(41.3)	188(44.1)	466(42.4)
	환경보존이 더 중요함	289(52.2)	229(41.9)	230(46.9)	147(44.0)	136(50.6)	317(47.2)	199(46.7)	518(47.1)
	잘 모르겠다	13(2.3)	9(1.6)	5(1.0)	12(3.6)	5(1.9)	15(2.2)	7(1.6)	22(2.0)
	기타	12(2.2)	4(0.7)	11(2.2)	1(0.3)	4(1.5)	11(1.6)	5(1.2)	16(1.5)
	계	554(100)	546(100)	490(100)	334(100)	269(100)	671(100)	426(100)	1100(100)
	χ^2	31.9***		15.1			1.95***		
통일에 대한 견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184(33.1)	96(17.5)	129(26.1)	76(22.7)	75(28.0)	199(27.4)	79(21.2)	280(25.3)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87(15.6)	102(18.6)	86(17.4)	64(19.1)	37(13.8)	126(17.4)	62(16.6)	189(17.1)
	어렵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	136(24.5)	119(21.7)	105(21.2)	86(25.7)	62(23.1)	176(24.2)	77(20.6)	255(23.1)
	통일이 오면 더 복잡하므로 현 상태가 좋다	101(18.2)	186(33.9)	129(26.1)	88(26.3)	68(25.4)	169(23.3)	117(31.4)	287(26.0)
	별 생각이 없다	41(7.4)	39(7.1)	39(7.9)	20(6.0)	20(7.5)	48(6.6)	32(8.6)	80(7.2)
	기타	7(1.3)	7(1.3)	7(1.4)	1(0.3)	6(2.2)	8(1.7)	6(1.6)	14(1.3)
	계	556(100)	549(100)	495(100)	335(100)	268(100)	726(100)	373(100)	1105(100)
	χ^2	55.2***		11.6			13.2*		

*p<.05 **p<.01 ***p<.001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결정이 인류사회에 더욱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환경보존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사료된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 신문사의 NIE 담당자와 교수·교사 등 3백5명이 참가한 이 NIE대회 참가자들은 무한경쟁에서 이기는 힘과 기술만 익히는 교육보다는 21세기의 교육의 화두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바른 가치관과 태

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하였다(중앙일보, 1999. 5. 31).

다음으로 '통일에 대한 견해'를 보면, 청소년들은 통일이 오면 더 복잡하므로 현 상태가 좋다(26.0%),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25.3%), 어렵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23.1%)는 항목에 대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통일관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성별과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데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동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삼성복지재단(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인문계 학생에 비해 실업계학생의 경우 동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별생각이 없다는 응답도 72%로 나타났는데, 남북한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동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왜 동일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동일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은 물질만능주의와 사치와 향락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환경보존의 가치관을 지니며, 다양한 동일관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및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성별, 계열,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성장하므로 유사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발달시키지만, 청소년집단 내의 개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2. 청소년과 부모의 가치관 비교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가치관은 가치관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대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관의

<표 5>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삶에 대한 가치관

영역	집단	청소년자녀	부모	x ²
		빈도(%)	빈도(%)	
삶의 가치	나라에 충성하는 일	22(2.0)	101(9.3)	238.4***
	부모에 효도하는 일	318(28.8)	414(38.2)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	170(15.4)	310(28.6)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일	543(49.1)	228(21.0)	
	기타	53(4.8)	31(2.9)	
	계	1106(100)	1084(100)	
삶에 대한 가치관	돈을 많이 버는 것	174(15.8)	127(11.7)	184.7***
	학식을 많이 쌓는 것	19(1.7)	125(11.6)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	77(7.0)	62(5.7)	
	사회나 국가를 위한 헌신	84(7.6)	221(20.4)	
	자신의 소질을 최대한으로 개발	691(62.6)	519(48.0)	
	기타	59(5.3)	27(2.5)	
계	1104(100)	1081(100)		
운명에 대한 태도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807(73.0)	812(75.2)	26.6***
	아무리 노력하여도 바꿀 수는 없다	78(7.1)	123(11.4)	
	관심이 없다	119(10.8)	85(7.9)	
	잘 모르겠다.	82(7.4)	46(4.3)	
	기타	20(1.8)	14(1.3)	
	계	1106(100)	1080(100)	

***p<.001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표 6〉 청소년자녀와 부모의 가정에 대한 가치관

영역	집 단	청소년자녀	부모	χ^2	
		빈도(%)	빈도(%)		
가정에 대한 가치관	가정의 역할	즐겁고 안락한 휴식제공	385(34.9)	338(31.3)	122**
		인격의 기초 형성	275(24.9)	341(31.6)	
		애정적 기능 제공	352(31.9)	319(29.6)	
		기타	92(8.3)	81(7.5)	
		계	1104(100)	1079(100)	
	행복한 가정의 조건	물질적인 풍요 및 사회적 출세	63(5.7)	62(5.8)	1123***
		가족의 건강	416(38.0)	638(59.6)	
		가정의 화목	587(53.6)	340(31.7)	
		기타	30(2.7)	31(2.9)	
		계	1056(100)	1071(100)	
	결혼의 필요성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460(41.6)	579(53.6)	35.0***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안해도 괜찮다	536(48.5)	420(38.9)	
		생각해 본 적이 없다	70(6.3)	41(3.8)	
		기타	40(3.6)	40(3.7)	
		계	1106(100)	1080(100)	
	효도하는 방법	자기 자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422(38.2)	399(36.9)	915***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는 것	33(3.0)	105(9.7)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550(49.8)	555(51.4)	
		자신이 입신 출세하는 것	94(8.5)	17(1.6)	
		기타	5(0.5)	4(0.4)	
계		1104(100)	1080(100)		
부모 부양 방법	장남 집에서 모신다	371(33.7)	539(50.3)	2127***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신다	327(29.7)	309(28.9)		
	유료양로원에서 모신다	22(2.0)	48(4.5)		
	부모님만 사신다	113(10.3)	111(10.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05(9.5)	60(5.6)		
	기타	162(14.7)	4(0.4)		
	계	1100(100)	1071(100)		

p<.01 *p<.001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하위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6〉, 〈표 7〉

1) 청소년과 부모의 삶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 질문에 청소년자녀의 49.1%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38.2%가 부모에 효도하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속한 동시 집단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로 보여진다.

'인생의 목표'를 보면 청소년자녀들은 자신의 소

〈표 7〉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

영역	집단	청소년자녀	부모	x ²	
		빈도(%)	빈도(%)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	심각한 사회 문제	물질만능주의	358(32.5)	374(34.8)	38.6***
		권위주의	209(19.0)	144(13.4)	
		사치와 향락주의	297(27.0)	299(27.8)	
		불신풍조	66(6.0)	82(7.6)	
		파벌과 지역감정	61(5.5)	106(9.9)	
		몰염치와 예절부재	85(7.7)	63(5.9)	
		기타	26(2.4)	8(0.7)	
	계	1102(100)	1076(100)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	경제성장이 더 중요함	78(7.1)	134(12.5)	39.7***
		둘 다 중요함	466(42.4)	358(33.3)	
		환경보존이 더 중요함	518(47.1)	531(49.4)	
		잘 모르겠다	22(2.0)	44(4.1)	
		기타	16(1.5)	7(0.7)	
	계	1100(100)	1074(100)		
	통일에 대한 견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280(25.3)	316(29.3)	118.5***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89(17.1)	290(26.9)	
		어렵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	255(23.1)	312(28.9)	
		통일이 오면 오히려 더 복잡하므로 현 상태가 좋다	287(26.0)	114(10.6)	
		별 생각이 없다	80(7.2)	40(3.7)	
		기타	14(1.3)	8(0.7)	
	계	1105(100)	1080(100)		

***p<.001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질을 최대로 개발하는 것(62.6%)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버는 것(15.8%)의 순이었으며, 학식을 많이 쌓는 것이라는 응답비율(1.7%)은 극히 낮았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의 소질을 최대로 개발하는 것(48.0%), 사회나 국가를 위한 헌신(20.4%), 돈을 많이 버는 것(11.7%), 학식을 많이 쌓는 것(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청소년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인생의 목표에서도 청소년세대는 개인주의가치관이, 부모세대는 집단주의가치관이 반영되고 있었다.

‘운명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자녀와 부모 모두 1위로 운명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에 지배받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연의 현상이나 질서를 개척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있었다.

2) 가정에 대한 가치관

가정의 역할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 결혼의 필요성에서는 청소년자녀와 부모가 1위로 응답한 항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세대간의 가치관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효도하는 방법, 부모부양 방법에서는 1위로 응답한 항목이 같게 나타나고 있

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대간의 가치관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자녀(24.9%)에 비해 부모(31.6%)는 '가정의 역할'을 인격의 기초형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부모 세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 직면하게 되는 가정의 역할을 사회화의 일차적 기관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부모도 청소년자녀의 가치관 정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김경신(199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사회화의 담당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과반수의 청소년자녀는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였으며, 과반수의 부모들은 가족의 건강을 중시하였다. 이는 부모세대의 경우 중년기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가치관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혼의 필요성'의 경우 청소년자녀의 48.5%는 필요성이 없으면 안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53.6%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청소년세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세대는 제도적 결혼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부모의 상이한 가치관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효도하는 방법'은 청소년자녀(49.8%)와 부모(51.4%) 모두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린다가 1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의 본질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는 오늘날의 효의 본질(김명자·안선영, 1996)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부모부양방법'은 청소년자녀(33.7%)와 부모(50.3%) 모두 장남 집에서 모신다가 1위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응답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부양을 나타내는 생계부양자도 장남이 27.0%로 5년 전의 33.1%에 비해 줄었고 장남 이외의 아들은 7.6%에서 10.9%로, 스스로 해결은 37.6%에서 41.6%로 증가했다는 통계청(1999)의 사회조사결과를 통해서도(한겨레신문, 1999, 5. 14) 부모부양 가치관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으며 청소년이 지닌 가치관의 변화 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부모의 부양관이나 효도관은 청소년에게 부분적으로 전달되고 있

다는 것이며, 이는 김경신(1998)연구와 일치한다.

3)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청소년자녀와 부모 모두 물질만능주의를 1위로 응답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서는 환경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과 부모의 가치관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청소년의 특징으로 먼저 물질주의 가치관의 팽배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청소년과 부모세대 모두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존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현실과 남북한 정상회담의 보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통일에 대한 견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급진적 사고를 보일 것처럼 예상했으나, 청소년자녀의 26.0%가 통일이 오면 오히려 더 복잡하므로 현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의 29.3%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고석중(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녀와 부모 간에 삶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밝혔으며, 청소년자녀와 부모는 발달과정의 차이와 동시집단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간의 갈등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은 자녀를 사회화하는 일차 기관이므로 부모자녀간의 유사한 가치관도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은 유사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발달시키지만, 개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은 상이하므로, 청소년의 가치관을 연구

할 때 동시집단의 보편적인 면과 함께 개별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동시집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과 부모세대는 역사적 경험과 성장 시기가 다르므로 당연히 세대차이와 세대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아울러 세대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가치관의 차이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별, 계열,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성장하므로 유사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발달시키지만 청소년집단 내의 개개인의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가치관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을 X세대·오빠부대·멀티미디어족 등으로 칭하면서 청소년의 도덕성·인간성 상실과 함께 청소년의 이기적·소비적·물질만능적인 가치관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권이중 외, 1998),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다양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명확한 실태 규명과 동시에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시정하는 과제가 시급하며,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별과 계열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청소년과 부모간에 삶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청소년과 부모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올바르게 바람직한 가치 체계를 전달하는 등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며, 청소년 세대도 부모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들

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정우(1978)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주부들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재교육을 받아야하고 또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보다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보다는 가정학자들이 청소년과 그 부모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치관을 비교 분석한 탐색적 성격의 실태조사로서, 1125쌍이라는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또한 후속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부모의 가치관의 관계를 심층분석할 것이며,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개인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사회변인 등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¹⁾

결국 실태조사와 심층 분석의 연구를 병행하여,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석중(1997), 제주지역 주민의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 2) 권이중·남정걸·차경수·최충욱·최운실·최윤진(1998), 청소년교육론, 서울: 양서원.
- 3) 김경신(1989), 부모와 대학생 자녀간의 가치전달 연구-교육과 직업에 관한 가치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4)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1) 후속연구도 함께 진행중임.

- 5) 김경신(1999), 가족관계와 청소년, 뉴밀레니엄 시대의 가족과 청소년: 변화와 복지, 한국가족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1-21.
- 6)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7) 김명자·안선영(1996), 신세대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6), 113-125.
- 8) 김문조 외 3인(1995), 한국 청소년의 의식세계: 인성발달론적 관점,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9) 김애순·윤진(1997), 청년기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10) 김영숙(1990), 세대간 가치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 11) 김일명·김명자(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 12)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 교육, 서울: 문음사.
- 13) 김태희(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만족도-청소년 발달·중년기 변화·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연대 석사학위논문.
- 14)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어머니와 딸의 두 세대간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 15) 박승욱(1991), 목회상담학적 접근으로서의 중년기 가족성장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16) 삼성복지재단(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생활 설계적 접근.
- 17) 송정아·윤명선(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향상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82.
- 18) 안종진(1992), 사회계층과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가치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19) 오상현(1995), 세대별·세대간 가치관 차이에 대한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20) 유영주·김진숙(1990), 가정확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가족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3), 겨울, 19-35.
- 21) 윤진(1993),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22) 이계학(1992),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변천에 관한 연구, 연구논총 92-6, 한국의 청소년문화(1), 청소년문화의 변천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172.
- 23) 이병주(1989), 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연구-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 24) 이정우(1978), 한국 도시여성의 가치관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제18집, 39-65.
- 25) 이춘재 외 8인(1997),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26) 임희섭(1980), 현대 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3집, 정신문화연구소
- 27) 장휘숙(1996), 청년심리학, 서울: 장승.
- 28) 정범모(1973),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29) 정윤경(199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행동유형결정, 숙대 석사학위논문.
- 30)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31) 최운실(1993), 사회변동과 청소년문화,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33-34.
- 32)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심리학, 서울: 서원.
- 33) 중앙일보(1999. 5. 31), [NIE] 세계 전문가 305명 '정직·친절 가르쳐야'
- 34) 한겨레신문(1999. 5. 14), [통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추이
- 35) Binger, J. J.(1985), 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2th ed,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85.
- 36) Duncan, L. E., & Agronick, G. S.(1995), The intersection of life stage and social events: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Journal of

-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3).
- 37) Glass, J., Bengtson, V. L., & Dunham, C. C.(1986), Attitude similarity in three-generation families: Socialization, status inheritance, or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5), 685-698.
- 38)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1961), Variation and in Value Orientation, Evanston, Ill: Row & Peterson.
- 39) Lamanna & Riedman, A.(1994), Marriage and family: Making choices and facing chang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40) Newcomb, T. M, Turner, R. H. and Coverse, P. H.(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20-135.
- 41) Papalia, D. E., & Olds, S. W.(1995), Human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42) Riley, M. W.(1987), On the significance of age in soci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1-14.
- 43)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Glencoe, il: Free Press.
- 44) Small, S. A., & Eastman, G.(1991). Rearing adolescents in contemporary socie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sponsibilities and needs of parents, Family Relations, 40, 455-462.